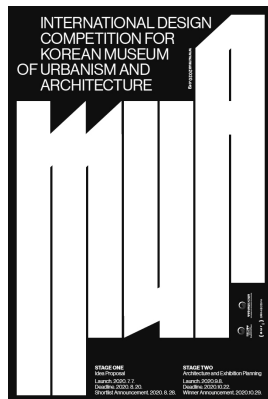


국립도시건축 박물관의 시작: 국제설계공모 추진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 연구단장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시작하기까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축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의 시작과 함께 국외의 건축과 도시 관련 박물관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설립되면서 건축 아카이브와 도시건축박물관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11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도시건축박물관을 포함한 국립박물관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그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5년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그리고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에는 국립박물관단지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2019년에는 박물관단지의 1차 건립시설인 어린이박물관, 통합운영센터, 통합수장고의 설계가 완료되어 2020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국립박물관단지에는 우선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까지 5개 박물관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도시건축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에 이은 두 번째 박물관으로 2019년에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도시건축박물관은 총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조성되는데, 이는 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중 최대 규모다. 올해 안으로 도시건축박물관 설계에 착수하여 2022년 착공, 2025년 개관하는 것이 목표다.

도시건축박물관의 지향점

도시와 건축은 물리적 환경, 경제 및 기술에 국한된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이 영위되는 토대로서 이용자인 시민과 함께 평가되고 개선되며 변화되

어야 할 대상이며, 우리 사회의 질적 수준을 투영하는 시험지이다. 따라서 도시건축박물관은 전문가, 실무자, 시민이 함께 세계적·국가적·시대적·사회적으로 도시와 건축에 대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요구와 이슈들을 공유하고, 더 나은 도시적 삶에 대한 논의를 생산하는 참여와 소통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건축박물관은 유물 중심의 전통적인 박물관과 달리 자체적으로 다양한 아카이브와 전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면서 전시-교육-연구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성장하는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

도시건축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조성되는 시설로 국립박물관단지 전체 및 인접시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관람객이 전시물을 단순 관람하는 일반적 방식과는 달리 도시건축박물관 자체가 전시물이 되어 관람객이 다양하고 즐거운 건축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도시건축박물관은 확보된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 기능 중심의 박물관이 아닌 도시와 건축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전시하고, 교육, 연구로 확장하는 아카이빙 중심의 박물관으로서 아카이브-전시-교육-연구와 관련한 기능과 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도면, 모형, 필름, 문서, 디지털 생산물, 건축재료, 건축부재 등 다양한 형식과 규모의 전시매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의 구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지난 6월 24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도시건축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행복청은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을 담당하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행복청은 이번

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서 평가를 통해 지난 4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2단계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며, 도시건축박물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콘셉트와 개략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는 1차 공모와 구체적인 건축설계안과 전시공간 구상안을 제출하는 2차 공모로 나누어 실시한다. 공모에는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가 가능하지만,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는 국내 건축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한다.

7월 7일부터 8월 중순까지 총 45일간 진행되는 1차 공모에서는 5인의 심사위원이 공모지침상 주요사항을 고려하여 5편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며, 2차 공모에서는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작품 5편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설계안을 심사해 10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설계공모 누리집(www.mua2020.org)을 통해 참가등록, 자료제공, 서류제출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종이 없는' 디지털 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시건축박물관의 논의가 시작된 2007년으로부터 13년 동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 필요성, 건립 방향, 국외사례, 공간 구성, 전시 콘텐츠, 아카이빙 등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보고서 등을 통해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을 이슈화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와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와 건축 아카이브의 구심점이자 도시와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의 거점으로서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위한 최적의 설계안이 선정되기를 기대한다.